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의 식판 위생을 책임지는 식판세척 서비스 기업 당진 ‘씨씨케어’

충남사회적경제 도민기자단

김 효 성

충남 사회적기업으로 활발히 사업을 펼치고 있는 주식회사 씨씨케어 박남한 대표와 사전에 제공한 질문을 통해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박대표는 자신이 부모로서 겪고 있는 일상과 경험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세 아이의 아버지로서 육아를 담당하며, 매번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가져오는 식기의 고무 패킹을 분리 및 식판 등을 세척 하는 일의 번거로움을 느꼈고, 아이의 가방 내에 음식물의 냄새가 베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가정의 부모도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과 이전 영양사인 배우자의 경험을 살려 식판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한다.



사진 1 세척 작업 현장 (제공: 씨씨케어)

주식회사 씨씨케어는 2019년 3월 식판선생님 당진점으로 법인 설립 이후에 2019년 7월, 충남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었고, 2020년 9월 주식회사 씨씨케어로 상호변경하면서 본격적으로 식판 세척 및 대여하는 식판위생관리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주식회사 씨씨케어는 2022년 6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기업에서 진행하는 식판 서비스의 주요 대상은 어린이집·유치원이며 아이들의 식판, 숟가락, 포크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 사용한 식판을 매일 수거하여, 3번의 세척, 건조 및 소독 과정을 거쳐 교육기관으로 다시 배송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 현재는 무려 관내 45곳에 (약 2,000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서비스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진 2 세심하게 식판의 위생상태를 점검하는 근로자(제공: 씨씨케어)

박대표는 ‘씨씨케어’만의 특별한 점에 대해 1종세제와 정제수 설비시스템에 대해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1종 원료만을 사용하여 인체에 안전하고, 별도의 행굼 없이도 세정력이 높은 담금 세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살균건조기 설비를 통해서 약 6시간 동안 식판 살균 및 건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식판을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엄격히 검수 과정을 관리하고 친환경 박스에 포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들이 위생적이고 깨끗한 식판을 식사 시간에 사용하기를 바라는 대표의 마음이 해당 사업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식판서비스사업에 대한 이슈와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것에 약간의 아쉬움을 내비치면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영유아들이 집에서 세척 후 사용하는 식판 및 수저통의 오염도가 높다는 기사를 언급했다. 특히, 식판 뚜껑 부분과 수저 보관통 등의 대장균 수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가정에서의 식기구 위생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예를 들었다.

이 밖에도 씨씨케어는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서 역할을 해나가고 있다. 주로 취업 시, 나이의 제약에 부딪히거나 스스로 겪는 자격지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력 단절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특별한 기술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더불어,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에게는 할인된 금액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자녀 이상은 한 자녀에 대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충남당진지역자활센터와 배송용역계약으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당진복지재단을 방문하여 충남당진지역 자활센터에 칼토마 EV 1톤 화물탑차를 기부하기도 했다.

전달차량으로 자활 근로 참여주민들이 당진시 소재 50여 개 어린이집 원아들의 식판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배송하는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당진시 장애인복지관 및 지역아동센터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씨씨케어의 기업활동은 단순히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박대표의 고민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지역사회와 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업과 활발한 기부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확산하여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는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끝으로 개인 및 사업에 대한 대표의 미래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사업의 방향에 있어서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는 환경문제를 고려하여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례식장에서 또는 축제/행사 시 많이 쓰이는 일회용품의 수를 줄일 수 있도록 추진하고 해당 서비스 대상의 범위를 양로원, 요양원, 중소기업 등으로 점진적인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개인적인 계획으로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한국기술대학원의 석사과정을 마친 후, 박사학위까지 도전하여 전문 경영인으로서 더욱 성장하여 앞으로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가치 실현을 위해 활동하고 싶다고 다짐을 전했다.